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⑦

佛言一切衆生 盡是迷人 因此作業 佛言一切衆生 盡是迷人 因此作業...

應耳聞聲 應鼻嗅香 應舌知味 應目觀色 應身覺觸 應心知法...

四大로 된 몸은 생멸이 있으나 法身은 머무르되 머무는 바 없다

생은 다 미혹된 사람이다. 이로 인하여 업을 지으므로 생사의 바다에 빠져서 나오려 하다가도 도리어 빠져게 되는 것은 단지 성품을 보지 못해서이다.

성인들의 여러가지 분별은 다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마음이 광대하여 응응을 보지 못해서이다.

聖人種種分明 皆不離自心 聖人種種分明 皆不離自心...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큰 스님과의 대화

법으로써 불교의 사회활동이 더욱 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하면 한편에서는 탐 진 치 삼독심의 제거가 불교의 궁극이므로 더욱 수행과 기도에도 정진해야 한다는 반론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욕망의 무게 줄여야 상생”

불교의 사회적 활동. 그러나 인권 문제, 경제정의, 최근의 총선, 환경,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교의 사회활동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요.



1924년 일본 오사키에 출생. 45년 오사키 의학전문 학교 졸업. 48년 동산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득도. 73년 범어사 주지. 74년 영구암 주지. 현재 김해 동림사에 주석.

두려움이 앞섭니다. 과거의 농경사회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회였다면, 현대의 사회는 한치의 예측도 불허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현대의 과학적 통제가 진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다양한 현실적 교육내용을 보강하여 당장 밀릴 속에 던져놓아도 숲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은 용기를 오늘을 사는 수행자와 불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KBS 선정 <한국의 불가사의> 마이산 탐사의 영험과 돌탑에 얽힌 비밀!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신비한 작용.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악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